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4, Vol. 36, No. 1, 229-254
http://dx.doi.org/10.23844/kjcp.2024.02.36.1.229

OPEN ACCESS

대학생의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절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김 영 신 서강대학교 / 석사 졸업

연 규 진† 서강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절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수집한 총 376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고,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SPSS 20.0과 Mplus8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증가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이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가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절되었다. 구체적으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을 매개하는 영향이 강화되었다. 한편, 전반적인 진로적응력 수준을 살펴보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적응력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상담 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진로적응력, 삶의 만족,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

* 본 연구는 김영신(2022)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모와의 진로적합성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절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연규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다산관 336호
Tel: 02-705-8327, E-mail: kjyon@sogang.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사회에서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진로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에서 한국 대학생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행복 지수보다 스트레스 지수를 더 높게 보고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취업준비와 향후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잡코리아X알바몬 통계센터, 2020). 이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6)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독일, 브라질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학생 가치관 비교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의 삶 만족도는 7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한국 대학생 중 78.5%는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 발달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 행복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전통적인 진로이론들은 서구문화 중심적이고 구조적·문화적 변인들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Fitzgerald & Betz, 1994; Leung, 1995),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을 고려한 다문화적 관점에서 진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u(2004)는 개인주의 문화권의 국가들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의 국가들에서는 상호의존성과 가족 기대를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민봉과 심형인(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소속감과 집단의 힘에 의지하고, 역사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위계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해 다른 사람들, 그중에서도 내집단에 속하며 권위를 가지는 사람인 부모로부터 주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진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원은 집단주의 문화권 대학생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Akosah-Twumasi et al., 2018; Gunkel et al., 2013; Mau, 2000). 부모의 진로지지는 자녀의 진로정체감(이현주, 2010)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김수리, 이재창, 2007; 김진희, 박미진, 2016; 이상희, 2009; 하수경, 2014)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이 간섭이나 과도한 기대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로 지각되거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지근, 김나래, 2020; 이현숙, 조한익, 2004). 따라서 부모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부모의 지지 자체보다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권다현, 2015; Dietrich & Kracke, 2009). 이는 진로상담에 대한 관계중심접근과도 관련이 있는데, 전통적인 진로이론에서 관계적 영향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간주한 것과 다르게 관계주의 진로상담 이론에서는 관계적 맥락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관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Schultheiss, 2003).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Sawitri 등(2013)은 개인이 태도, 가치, 목표, 경험의 측면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더 잘 적응하게 된다고 보는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 Bronfenbrenner, 1986)

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부모 진로조화성 척도(The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Scale)를 개발하였다.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은 진로수행의 주체인 청소년 관점에서, 진로와 관련된 의견들이 부모와 일치하는 정도 그리고 자녀의 진로 계획과 목표 및 부모의 지지에 대하여 서로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자녀가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와 서로 얼마나 합의되어 있고, 서로의 요구를 조화롭게 충족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Sawitri 등(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은 진로적응력(김수리, 2016), 진로결정(이근영, 연규진, 2019),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김영순, 손진희, 2018)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Sawitri & Creed, 2017) 및 삶의 만족(Sawitri et al., 2013; 권다현, 연규진, 2019)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졌다. 즉,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은 진로 관련 긍정적인 지표들뿐만이 아니라 삶 전반적인 자신감과 만족도와도 정적인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개념을 활용한 연구가 적고 대부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한국 대학생은 대학 입학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곽민서, 2021) 장기간의 양육과 교육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문정희, 천성문, 2020) 진로에 관하여 부모와 합의하고 서로 만족하는 정도는 여전히 진로발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진로발달 및 삶의 만족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인인 삶의 만족은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의식적인 판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지각한 삶의 여건이 스스로 설정한 중요한 삶의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이 높다고 느낀다(김명소 등, 2003). Sawitri와 Perdhana(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관련 연구로, 국내에서는 김영순과 손진희(2018)가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변량이 작기 때문에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의 영향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의 영향력을 진로적응력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진로적응력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에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나 능력이자, 진로 전환 과정에서 겪는 도전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기 조절 자원을 의미한다(Savickas, 1997). 최근 직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변화에 대한 적응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진로적응력은 현대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정은교, 안도희, 2018). 진로발달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로적응력은 성인기 진로발달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Super(1957)의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이 높을수록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역할이 다른 성인기에는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성숙의 정도로 진로발달수준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적응력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Super & Knasel, 1981). 특별히, 대학생 시기는 상황에 따라 전공을 선택 혹은 변경하기도 하고, 졸업 후 사회 진출에 대비하는 등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다양한 전환과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진로적응력에 관계적인 측면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모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자녀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지원이지만(Furman & Buhrmester, 1985), 특히 대학 입학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는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합의와 상호 만족 수준이 진로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arola와 Marcionetti(2022)의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중・고・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진로 관련지지 행동이 진로적응력을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은 부모의 일방향적인 지지를 넘어 부모라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로적응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진로적응력에 대한 부모 관련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데(Guan et al., 2015), 그 이유는 진로적응력에 관한 연구 자체가 2010년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아직까지 축적된 연구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박은규, 이서정, 2018). 또한 진로적응력은 성인기의 진로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서구 사회에서는 성인기의 경우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 관련 영향에 덜 주목했기 때문일 수 있다(유혜승, 20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진로적응모형(Career Construction Model of Adaption)에 따르면 적응결과는 개인과 환경의 좋은 적합도에 따른 결과로 여겨지며(Savickas & Porfeli, 2012), 삶의 만족은 중요한 적응결과로 볼 수 있다(Hirschi et al., 2015; Parola & Marcionetti, 2022; Rudolph et al., 2017). 진로적응모형이란 적응 과정을 적응준비(Adaptavity), 적응자원(Adaptability), 적응반응(Adapting), 적응결과(Adaptation)로 연결하는 이론적 틀이며, 적응자원은 진로적응력으로 평가된다(Savickas & Porfeli, 2012). 선행연구에서 진로적응력은 진로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Creed et al., 2009), 진로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연, 신효정, 2019; Chan & Mai, 2015). 진로적응력이 높다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통제감이 높아지고, 생활 전반에서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Hirschi, 2009). 즉, 진로적응력은 진로 관련 성과와 만족에 국한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미예, 조남근, 2015; Ginevra et al., 2018; Hirschi, 2009; Santilli et al., 2017). 진로적응력을 사용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Rudolph 등(2017)의 연구에서도 진로적응력은 개인의 안녕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대학생 시기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가야 하는 전환시기이며 직업인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도전의 시기로서 진로가 삶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진로적응력이 높으면 새로운 변화와 어

려움을 잘 조절할 수 있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한국문화에서는 부모와 상호 만족하는 진로 합의가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을 통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진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의 기대를 중시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진로발달에 대한 관계적 접근에서는 관계적 맥락을 건강한 진로발달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Schultheiss, 2003). 성인이 되어가는 대학생 시기에는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지각하고 자신이 지각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므로(McElhaney & Allen, 2001), 진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도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고 가족의 기대와 위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적응력을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개인의 진로 결정 접근 방식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본 Gati 등(2010)은 진로 의사결정 프로파일 중 한 차원으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Decision to Please Others)'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의 기대를 중요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진로 의사결정 맥락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높다는 것은 진로 결정 과정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입학 전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는 높을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고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Gadassi et al., 2012; Gadassi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와 대학생의 진로 발달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영향을 고려함에 있어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계적 맥락의 복잡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정적 인간관계와 위계성을 중시하고 집단주의적인 한국 문화에서는(유민봉, 심형인, 2013), 진로에 대한 부모의 의견과 지지가 대학생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전미리, 김봉환, 2018). 개인주의적인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얼마나 개별화(individuation)되었는지를 성숙의 지표로 여기는 것과 달리, 관계주의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자녀 간 상호 유대, 수용,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지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현정환, 2007; Tamura & Lau, 1992).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두고 봤을 때,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의 정도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수준에 따라,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적응력을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진로적응력이 매개하는가? 둘째,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가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절되는가?

방 법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삶의 만족, 진로적응력,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관계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진로적응력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가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대상은 총 376명의 대학생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만 나이는 최저 18세에서 최고 37세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2.07세 (SD=2.43)였다. 성별은 남성이 84명(22.3%), 여성이 292명(77.7%)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49명(13.0%), 2학년이 94명(25.0%), 3학년이 107명(28.5%), 4학년이 126명(33.5%)이었다. 전공은 인문계열이 80명(21.3%), 사회계열이 101명(26.9%), 교육계열이 28명(7.4%), 공학계열이 55명(14.6%), 자연계열이 38명(10.1%), 의약계열이 38명(10.1%), 예체능계열이 31명(8.2%), 기타가 5명(1.3%)이었다. 대학 분류는 4년제 대학이 365명(97.1%), 2, 3년제 대학이 9명(2.4%),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 대학(원격 대학)이 1명(0.3%), 기타가 1명(0.3%)이었다. 학교 소재지는 수도권이 234명(62.2%), 경상도가 38명(10.1%), 전라도가 41명(10.9%), 충청도가 57명(15.2%), 강원도가 6명(1.6%)이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모두 부모가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279명(74.2%), 1/2 이상 부모가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47명(12.5%), 부모와 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8명(2.1%), 1/2 이하 부모가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19명(5.1%), 모두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23명(6.1%)이었다.

연구 절차

설문은 2022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 모아폼(Moaform)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예: 캠퍼스픽, 전대모)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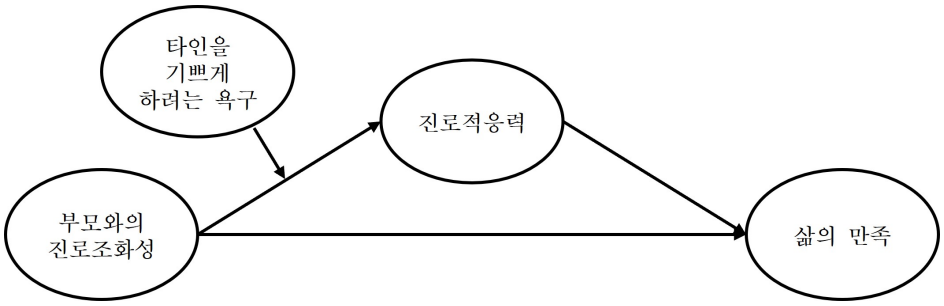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소재 대학교의 학생 커뮤니티(예: 에브리타임) 및 연구 참여자 모집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평균 설문 응답시간은 약 10분이었다. 설문 응답을 완료하고 휴대폰 번호를 기입한 경우, 모든 참여자에게 1000원 상당의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의 참여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OO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awitri 등(2013)이 개발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척도(The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Scale)를 권다현, 연규진(2019)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2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요인1: 전반적 상호합의, 요인2: 구체적 일치). 전반적 상호합의는 7문항(예: “우리 부모님과 나는 비슷한 진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계획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진로계획과 비슷하다.”), 구체적 일치는 5문항(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진로를 나에게 원하신다.”, “진로목표를 향해 내가 진전을 보이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권다현, 연규진(2019)의 연구에서 전체 .92, 전반적 상호합의는 .89, 구체적 일치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89, 전반적 상호합의는 .84, 구체적 일치는 .89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김정호(2007)가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수정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여건들은 아주 좋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1=‘매우 반대’, 7=‘매우 찬성’)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김정호(2007)의 연구에서 .84, 본 연구에서 .82로 나타났다.

진로적응력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한 진로적응력 척도(Career Adapt-Abilities Scale; CAAS)를 Tak(2012)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정지은(2013)이 일부 문항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4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요인1: 관심, 요인2: 통제, 요인3: 호기심, 요인4: 자신감). 관심은 6문항(예: “(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통제는 6문항(예: “(나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호기심은 6문항(예: “(나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탐

색한다.", "(나는)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대안을 살펴본다."), 자신감은 6문항(예: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나는)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정지은(2013)의 연구에서 전체 .896, 관심은 .771, 통제는 .780, 호기심은 .708, 자신감은 .85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912, 관심은 .767, 통제는 .758, 호기심은 .753, 자신감은 .806으로 나타났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본 연구에서는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Gati 등(2010)이 개발한 진로 의사결정 프로파일(Career Decision Making Profile; CDMP)을 김대원(2014)이 번안 및 타당화한 질문지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Desire to Please Others; DP)를 측정하는 3문항(예: "나는 결국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옵션 중 하나를 택할 것이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가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을 사용하였다. CDMP는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의 특징을 나타내는 11가지의 다차원 척도로서, 각 차원이 상당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총합 점수로 환산하지 않는다(Gati et al., 2010).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척도의 문항은 Likert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김대원(2014)의 연구에서 .83, 본 연구에서 .78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0.0, Mplus 8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Mplus 8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는데,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에 따라 1단계에서 측정모형을 추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적합도가 양호할 경우 2단계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 및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측정모형의 설정을 위하여, 각 잠재변수의 지표변수를 문항묶음(item perceling)을 통해 구성하였다. 문항묶음은 개별문항을 사용할 때에 비교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추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다(김수영, 2016). 각 변인의 특성에 따라, 하위차원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진로적응력은 내용기반 접근법(content-based approach)으로 문항묶음을 적용하였고, 일차원성이 가정되는 삶의 만족은 요인 알고리즘 방식(factorial algorithm)을 사용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경우 측정 도구의 문항 개수가 3개이므로 문항묶음을 적용하지 않았다.

1단계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검정에 더하여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인 CFI, RMSEA, SRMR 값을 확인하였으며(김수영, 2016; Boomsma, 2000; Kline, 2016; McDonald & Ho, 2002; West et al., 2012),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2단계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고 평가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하기 위하여 Cheung과 Lau(2017)의 제안에 따라 3단계를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잠재상호작용항이 없는 기저모형(baseline model)을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지, 그리고 모든 요인 부하량이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잠재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절된 매개 지수가 유의할 경우에, 3단계에서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의 크기와 그 추세를 파악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을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h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봤을 때,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은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r=.085, p>.05), 진로적응력(r=416, p<.01), 삶의 만족(r=.467,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적응력은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212, p<.01), 삶의 만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576, p<.01). 그리고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는 삶의 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r=-.081, p>.05). 즉,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와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의 절

표 1. 변인 간의 상관계수,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도(N=376)

		1	2	3	4
1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_			
2	진로적응력	.416**	_		
3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085	-.212**	_	
4	삶의 만족	.467**	.576**	-.081	_
	평균	4.075	3.814	3.520	4.238
	표준편차	.915	.535	1.292	1.200
	왜도	-0.294	-0.063	-0.190	-0.143
	첨도	0.230	-0.302	-0.346	-0.138
	신뢰도	.890	.912	.778	.822

주. *p<.05 **p<.01 ***p<.001

표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N=376)

		1-1	1-2	2-1	2-2	2-3	2-4	3-1	3-2	3-3	4-1	4-2	4-3
1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1-1	전반적 상호합의	-											
1-2	구체적 일치	.557**	-										
2	**진로적응력**												
2-1	관심	.204**	.445**	-									
2-2	통제	.249**	.476**	.623**	-								
2-3	호기심	.146**	.418**	.630**	.635**	-							
2-4	자신감	.259**	.414**	.525**	.694**	.553**	-						
3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DP)**												
3-1	DP1	.102*	.105*	-.075	-.080	-.063	-.099	-					
3-2	DP2	.155**	-.053	-.175**	-.172**	-.147**	-.169**	.535**	-				
3-3	DP3	.096	-.086	-.133**	-.233**	-.217**	-.212**	.539**	.541**	-			
4	**삶의 만족 (SWLS)**												
4-1	SWLS1	.304**	.458**	.419**	.622**	.344**	.499**	-.028	-.104*	-.108*	-		
4-2	SWLS2	.397**	.413**	.402**	.524**	.312**	.422**	-.030	-.055	-.097	.666**	-	
4-3	SWLS3	.369**	.255**	.388**	.530**	.260**	.482**	-.038	-.031	-.068	.637**	.673**	-

주. *p<.05 **p<.01 ***p<.001

대값이 .90 미만으로 나타나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문수백, 2010).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값은 모두 ±1 사이로 나타났으며, 각각 절대값이 2와 7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Curran et al., 1996). 또한, 모든 척도의 신뢰도가 .70 이상으로 좋은(good) 수준을 나타냈다(Nunally,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 검정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χ^2, CFI, RMSEA, SRMR 값을 토대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했으며, 이에 더불어 구인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χ^2 = 222.946(df=48, p<.001), CFI=.918, RMSEA=

.098, SRMR=.052로 나타났다. χ^2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고, CFI 값이 .90 이상(Bentler, 1990), RMSEA 값이 .10 이하(Browne & Cudeck, 1993), SRMR 값이 .08 이하로 나타나(Hu & Bentler, 1999), χ^2검정을 제외한 CFI, RMSEA, SRMR 값은 모형이 적합한 수준임을 나타났다. χ^2검정은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하는 정도를 검정하는 통계적인 방법이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과도하게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어, CFI, RMSEA, SRMR과 같은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김수영, 2016; Boomsma, 2000; Kline, 2016; McDonald & Ho, 2002; West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I, RMSEA, SRMR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측정모형의 구인타당도, 즉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결과 또한 모형이 적합함을 뒷받침하였다. 먼저 요인부하량을 통해 보았을 때, 각 잠재변수를 구인하는 모든 지표

표 3. 지표변수의 요인부하량

	표준화 추정치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전반적 상호합의	.628***
구체적 일치	.887***
진로적응력	
관심	.722***
통제	.893***
호기심	.719***
자신감	.771***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1	.721***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2	.734***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3	.747***
삶의 만족	
삶의 만족a	.831***
삶의 만족b	.819***
삶의 만족c	.783***

주.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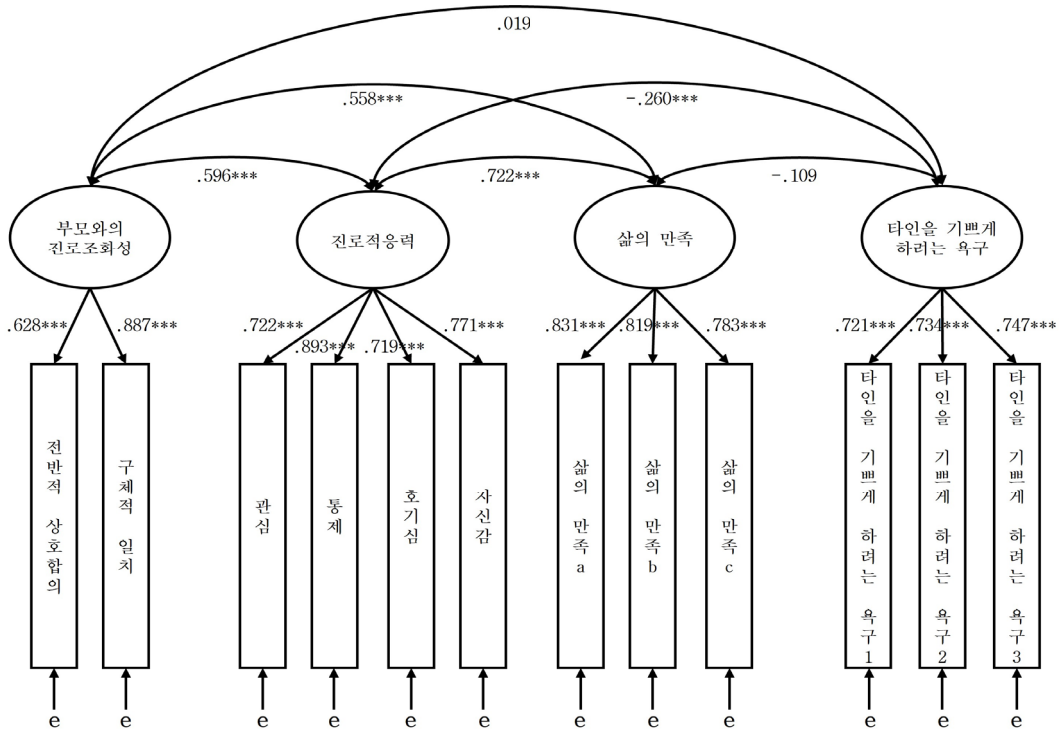
표 4.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결정계수

	상관계수	결정계수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 진로적응력	.596***	.355
↔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019	.000
↔ 삶의 만족	.558***	.311
진로적응력		
↔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260***	.068
↔ 삶의 만족	.722***	.521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 삶의 만족	-.109	.012

주. a) *p<.05 **p<.01 ***p<.001 b) 결정계수=상관계수의 제곱

표 5. 잠재변수의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지수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74	.59
진로적응력	.86	.61
삶의 만족	.85	.65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78	.54



*p<.05 **p<.01 ***p<.001

그림 2.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변수들의 요인부하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적합한 수준을 보였으며(Hair et al., 2010),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90 이하로 나타나 변별타당도 또한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Kline, 2016).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확인하였을 때, CR이 .74-.86의 범위로 나타나 .70 이상이었고, AVE가 .54-.65의 범위로 나타나 .50 이상이었으므로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모든 잠재변수의 AVE가 결정계수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지표변수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및 결정계수, CR, AVE는 표 3, 표 4, 표 5,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구조모형 검정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와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절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구조방적식 모형의 경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이후 조절된 매개효과의 분석은 자료 분석 부분에서 설명한 Cheung과 Lau(2017)의 3단계(기저모형 분석,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조절 변수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의 크기 파악)에 따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정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248.512(df=50, p<.001), CFI=.907, RMSEA=.103, SRMR=.077으로 나타났다. RMSEA 값이 .10 이하(Browne & Cudeck, 1993)라는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RMSEA 값은 모형이 복잡하여 자유도가 낮거나 표본 크기가 작을 경우 과대 추정될 수 있으므로 CFI와 같은 다른 적합도 지수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인 CFI 값은 .90 이상(Bentler, 1990), SRMR 값은 .08 이하로 나타나(Hu & Bentler, 1999)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매개효과 검정 결과,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β=.368, p<.001). 즉,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높아지면 진로적응력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모형의 각 경로계수와 매개

표 6. 매개모형의 각 경로계수 검정 결과

경로	표준화 추정치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 진로적응력	.584***
진로적응력 → 삶의 만족	.629***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 삶의 만족	.159

주. *p<.05 **p<.01 ***p<.001

표 7. 매개효과 검정 결과

	표준화 추정치	BC Bootstrap 95% 신뢰구간	
		LLCI	ULCI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 진로적응력 → 삶의 만족	.368***	.256	.504

주. *p<.05 **p<.01 ***p<.001 / *Bootstrap*=10000

효과 검정 결과를 각각 표 6, 표 7에 제시하였다.

기저모형의 적합도 검정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의 1단계로, 잠재상호작용항이 제외된 기저모형의 적합도와 모든 지표변수들의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기저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χ^2=223.782 (df=49, p<.001), CFI=.918, RMSEA=.097, SRMR=.053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각 지표변수들의 요인 부하량은 .636 ~ .894로 나타났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기저모형이 자료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

기저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고 모든 지표변수들의 요인 부하량이 유의하였으므로, 잠재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조절된 매개모형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절된 매개모형의 각 경로계수 검정 결과,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는 .465(p<.001)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진로적응력과 삶의 만족의 관계는 1.528(p<.001)로 유

표 8. 조절된 매개모형의 각 경로계수 검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 진로적응력	.465***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 진로적응력	-.139***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x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 진로적응력	.136*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 삶의 만족	.506**
진로적응력 → 삶의 만족	1.528***

주.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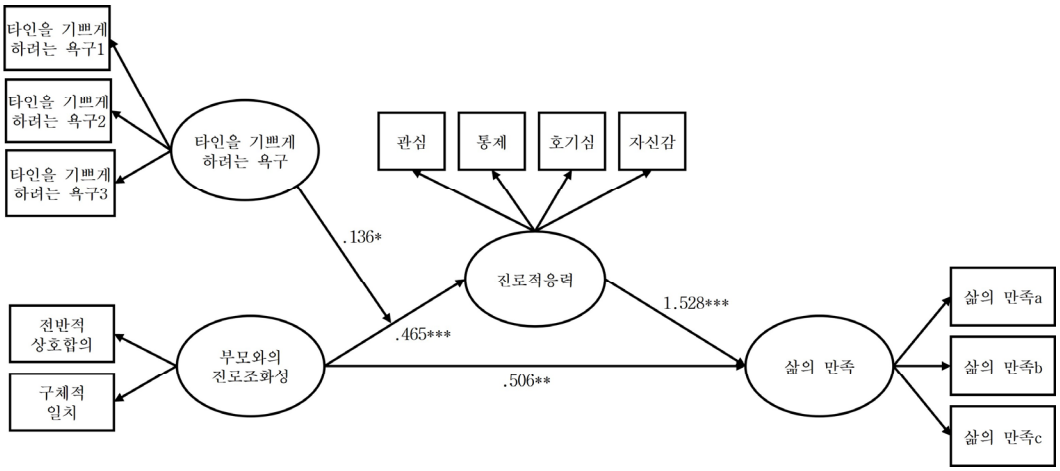


그림 3. 조절된 매개모형

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고,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에 만족의 직접경로를 살펴본 결과 .506(p<.01)으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잠재상호작용항과 진로적응력의 관계는 유의하였다(b=.136, p<.05). 상호작용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특정한 값(평균값±1SD)에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도식화했는데, 그림 4를 보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적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진로적응력의 정적 관계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진로적응력 수준을 살펴보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적응력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낮은 경우 두드러졌다. 다시 말해,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수준이 낮은 경우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수준에 따른 진로적응력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수준이 높은 경우 차이가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증가하면 진로적응력이 증가하는데,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 그 연관성이 강화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가 .208(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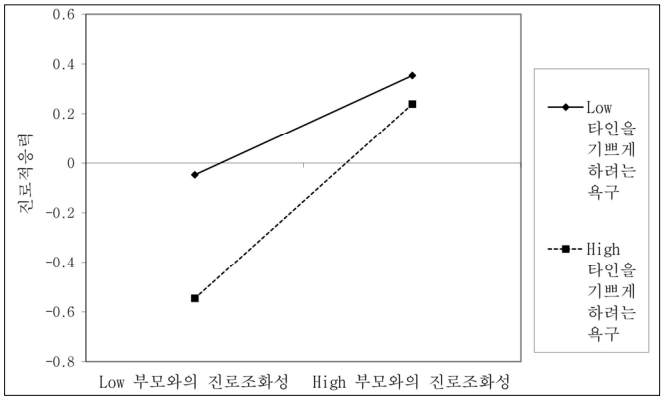


그림 4.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조절효과

표 9.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 결과

	비표준화 추정치	BC Bootstrap 95% 신뢰구간	
		LLCI	ULCI
조절된 매개 지수	.208*	.028	.357

주. *p<.05 **p<.01 ***p<.001 / *Bootstrap*=10000

표 10.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 추정치(진로적응력)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수준	추정치
-1*SD*	.482
평균	.711
+1*SD*	.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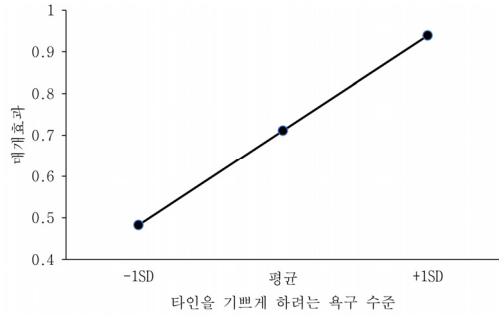


그림 5.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 변화 추세(진로적응력)

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 지수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높아지면, 진로적응력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로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였다. 표 10을 통해 나타낸 바와 같이,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5는 변화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 관련 부모 및 개인 내적 요인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탐색하여 대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절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진로적응력은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절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와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진로적응력이 매개하였다. 이는 부모와 진로에 관해 서로 만족하는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을수록 예측 불가능한 진로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삶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진로 관련 지지 행동이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확인한 Parola와 Marcionetti(2022)의 최근 연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개념은 부모의 단순한 지지를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녀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만족스럽게 부모가 제공해 주고 있다고 여기는지, 자신은 부모가 바라는 성취 수준을 만족시켜드리고 있다고 지각하는지, 서로 의견이 합치한다고 간주하는지를 확인하는 상호주의적 관점을 취한다(Sawitri et al., 2013). 따라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높다는 것은 진로적응을 위한 지지자원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

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로서 진로적응력에 보다 밀접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에 부합하는 결과로, 개인과 환경의 좋은 적합도가 적응자원인 진로적응력에 정적 영향을 미쳐 적응결과로서 삶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진로적응력이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을 매개하는 효과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었다. 한국 대학생 자녀가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적응력을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되었다. 즉,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높은 경우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여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높을 경우 진로적응력과 삶의 만족도가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상호작용 그림 3을 자세히 살펴보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진로적응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자체는 진로적응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수준이 낮을 때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따른 진로적응력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높은 경우에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불확실한 진로 변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별로 없을 수 있다. 반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높은 대학생이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낮은 경우, 진로적응력도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 떨어져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는 낮을수록 적응적이라고 주장한 선행 연구들(Gadassi et al., 2012; Gadassi et al., 2013)을 지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그러한 영향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구체적으로, 집단주의적이고 가족의 기대와 위계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적인 맥락에서는(유민봉, 심형인, 2013; Mau, 2004)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높을 경우 단순히 부적응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부모와 상호작용하여 서로 진로에 대해 합의하고 만족하고 있는 정도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결과와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발달과 만족스러운 삶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단계상 독립적인 성인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면서도 가족의 기대를 중요시하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곽민서, 2021; 유민봉, 심형인, 2013; Mau, 2004)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와 진로에 관한 의견을 합의하고 서로 만족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는 초 · 중 ·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대학생의 삶의

만족을 이해하는 데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상담 장면에 적용하면, 대학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가 진로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을 다루는 것이 유용한 상담 전략이 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부모와 진로에 관하여 얼마나 합의하고 상호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내담자의 현재 진로 어려움과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으며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낮은 대학생 내담자의 경우, 부모와 진로에 관하여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서로 원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하여 부모와의 진로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상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낮은 경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도울 필요가 있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의 특수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와의 진로조화성만을 높이는 것을 상담 목표로 삼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모가 내담자의 진로 흥미나 적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건강한 부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낮아서 생기는 어려움을 도울 필요는 있지만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자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자는 부모와 진로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고 부모로부터 만족스러운 지원을 받지 못하며 자신이 부모가 기대하는 성취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여길 때 내담자가 겪을 수 있는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친구 및 교수와 진로 대화 관련 대화를 나누고 대학의 진로 및 취업 지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안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은 개인과 환경이 가치, 목표, 태도 등의 측면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이론적 배경을 가진 개념으로서(Bronfenbrenner, 1986) 선행연구에서 삶의 만족과의 정적 상관은 재차 확인되었으나,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탐색된 바가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적응력을 통하여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대상 진로상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입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낮은 대학생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로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입하여 내담자의 만족스러운 삶을 도모할 수 있다. 진로적응력의 구성 요인을 고려했을 때(Savickas & Porfeli, 2012), 진로적응력 증진을 위해서는 내담자 자신의 직업적 미래에 대한 관심, 내적통제감, 개방성, 그리고 낙관성과 자신감에 대한 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진로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한 진로상담을 참고할 수 있는데, 진로구성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삶의 주제를 성찰하고 자신에게 중요한(matter)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의미 있는 진로를 구성하는 생애 설계의 과정을 돕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진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높이고, 미래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Sharf, 2016).

셋째,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적응력을 통해 삶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적응력을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으나,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자체는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을 낮추었고 이러한 부적 영향은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낮을 경우 더 컸다.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상담 현장에서 대학생 내담자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와의 상호주의적 영향을 다룰 때 내담자의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수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 결정 과정에서 타인을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에서 진로 고민을 다룰 때 부모와 서로 진로에 대한 지지와 노력에 대하여 만족하고 합의하는 정도에 대한 접근보다는 내담자의 진로적응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로 결정 과정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큰 내담자의 경우에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수준이 낮을 때 진로 전환 장면에 더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을 수 있다. 이때, 상담자는 상황에 따라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입하거나, 내담자가 부모와의 진로 합의와 상호 만족에서 얻지 못하는 지원과 만족감을 삶의 다른 관계와 영역을 통해 얻을 방안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로 결정에 관하여 중요한 타인의 기대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설문을 수집했으며, 연구 참여자 중 여성과 학비 및 생활비를 모두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참여자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 수준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확인한 Sawitri(2019)의 연구에서는 상호적 일치에 한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고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진로조화성과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진로적응력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대학 입학 이후에도 부모의 정서적 ·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 정도에 따라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 문제를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한 영향력의 차이를 보다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권일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이후에도 부모의 정서적 ·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특히나 대학생 시기에도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발달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경로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절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가 한국과 다른 국가 간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타인의 기대를 중시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 구조의 CDMP 척도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의 맥락에서 타인의 의견과 기대를 중요시하는 것에 특화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해 보고, 집단주의적 문화권 내에서 타인 특히 부모의 기대를 중시한 진로의사결정과 직업 만족 및 삶의 만족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 설계를 통해 연구 문제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모형의 주요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변인 간의 인과적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적응력을 경유하여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고, 부모와의 진로조화성이 진로적응력을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의 정도에 의해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곽민서 (2021.03.31). 결혼 안 한 30대 '캥거루족' 54.8%…"부모에게서 독립 못 해". 연합뉴스. 2022년 5월 1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082700002에서 검색.

권다현 (2015). **한국판 청소년-부모 진로 일치 척도 타당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다현, 연규진 (2019). 청소년-부모 진로 일치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6**(5), 85-116.

김대원 (2014). The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Career Decision Making Profile.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김수리 (2016). 부모-자녀 진로 일치도, 적응 유연성이 대학생의 진로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29-48.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김영순, 손진희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청소년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5**(6), 221-247.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25-345.

김지근, 김나래 (2020). 부모의 성취압력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의 두려움과 진로정체감의 이중 매개효과. **인간이해**, **41**(1), 49-66.

김진희, 박미진 (2016).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355-377.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6). **글로벌 7개국 대학생 가치관 비교 2016**. 서울: 동 연구소.

문수백 (2010).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문정희, 천성문 (2020).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1(3), 253-276.

박은규, 이서정 (2018). 대학생 진로적응성 관련 영향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8(3), 35-56.

유민봉, 심형인 (2013).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457-485.

유지연, 신효정 (2019). 진로적응성 연구의 문헌고찰: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진로적응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2), 1-24.

유혜승 (2016).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7(2), 283-309.

이근영, 연규진 (2019). 청소년-부모 진로 일치와 진로결정: 성취를 통한 가족 인정 지향성에 의한 접근목표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2(2), 25-46.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이현주 (2010).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진로행동유형 및 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효과. **진로교육연구**, 23(4), 151-171.

잡코리아X알바몬 통계센터 (2020.11.23). 대학생 '행복지수'보다 '스트레스지수' 더 높아. 잡코리아. 2022년 5월 11일 검색.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412

전미리, 김봉환 (2018).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 모형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대학생의 성실성 · 개방성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443-462.

정미예, 조남근 (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긍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의 구조적 분석. **상담학연구**, 16(2), 179-193.

정은교, 안도희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자율성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1(2), 171-192.

정지은 (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적 비교**. 서울: 집문당.

하수경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339-368.

현정환 (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kosah-Twumasi, P., Emeto, T. I., Lindsay, D., Tsey, K., & Malau-Aduli, B. S. (2018). A systematic review of factors that influence youths career choices-the role of culture. *Frontiers in Education, 58*(3), 1-15.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3), 461-483.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Chan, S. H. J., & Mai, X. (2015). The relation of career adaptability to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9*(1), 130-139.

Cheung, G. W., & Lau, R. S. (2017). Accuracy of parameter estimates and confidence intervals in moderated mediation models: A comparison of regression and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0* (4), 746-769

Creed, P. A., Fallon, T., & Hood,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person and situation variables, and career concerns in young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219-229.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Fitzgerald, L. F., & Betz, N. E. (1994). Career development in cultural context: The role of gender, race, class, and sexual orientation. In M. L. Savickas & R. W. Lent (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Implications for science and practice* (pp. 103-117). Palo Alto, CA: CPP Books.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Gadassi, R., Gati, I., & Dayan, A. (2012). The

adaptability of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4), 612-622.

Gadassi, R., Gati, I., & Wagman-Rolnick, H. (2013). The adaptability of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ssociations with self-efficacy, emotional difficulties, and decision statu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0*(6), 490-507.

Gati, I., Landman, S., Davidovitch, S., Asulin-Peretz, L., & Gadassi, R. (2010). From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o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277-291.

Ginevra, M. C., Magnano, P., Lodi, E., Annovazzi, C., Camussi, E., Patrizi, P., & Nota, L. (2018). The role of career adaptability and courage on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62*(1), 1-8.

Guan, Y., Wang, F., Liu, H., Ji, Y., Jia, X., Fang, Z., Li, H., Hua, H., & Li, C. (2015).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A three-wave investigation among Chinese under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6*(1), 95-103.

Gunkel, M., Schlägel, C., Langella, I. M., Peluchette, J. V., & Reshetnyak, E. (2013).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on business students' career attitudes-an analysis of eight countries. *German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7*(1), 47-68.

Hair, J. F., Anderson, R. E., Babin, B. J., & Black, W. C.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Vol. 7).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Hirschi, A., Herrmann, A., & Keller, A. C. (2015). Career adaptivity, adaptability, and adapting: A conceptu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1), 1-10.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Leung, S. A. (1995).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A multicultural perspective. In J. G. Ponterotto, J. M. Casas, L. A. Suzuki, & C. M. Alexander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counseling* (pp. 549-566). Thousand Oaks, CA: Sage.

Mau, W. C. (2000). Cultural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3), 365-378.

Mau, W. C. (2004). Cultural dimensions of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3*(1), 67-77.

McDonald, R. P., & Ho, M. H. R. (2002). Principles and practice in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Psychological Methods, 7*(1), 64-82.

McElhaney, K. B., & Allen, J. P. (2001). Autonomy and adolescent social functio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risk. *Child*

Development, 72(1), 220-235.

Nu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NY: McGraw Hill.

Parola, A., & Marcionetti, J. (2022).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career-related parental behaviors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9*(4), 831-845.

Rudolph, C. W., Lavigne, K. N., & Zacher, H. (2017). Career adaptability: A meta-analysis of relationships with measures of adaptivity, adapting responses, and adaptation res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8*(1), 17-34.

Santilli, S., Marcionetti, J., Rochat, S., Rossier, J., & Nota, L. (2017). Career adaptability, hope, optimism, and life satisfaction in Italian and Swiss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4*(1), 62-76.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 span, life 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The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80*(3), 661-673.

Sawitri, D. R. (2019). Career congruence with parent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Journal of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339*(1), 220-224.

Sawitri, D. R., & Creed, P. A. (2017). Collectivism and perceived congruence with parents as antecedents to career aspirations: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4*(6), 530-543.

Sawitri, D. R., Creed, P. A., & Zimmer-Gembeck, M. J. (2013). The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2), 210-226.

Sawitri, D. R., & Perdhana, M. S. (2020). Career-related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of Indonesian youth. In L. Hanum (Ed.), *Promoting well-be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pp. 305-325). Hauppauge, NY: Nova Science Publisher.

Schultheiss, D. E. P. (2003). A relational approach to career counseling: Theoretical integr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3), 301-310.

Sharf, R. S. (2016). 진로상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진로발달 이론의 적용(제6판). (김진숙, 김정미, 서영숙, 역). 서울: 박학사. (원본 출판 2013년).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NY: Harper & Row.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9*(2), 194-201.

Tak, J. K.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712-715.

Tamura, T., & Lau, A. (1992). Connectedness versus separateness: Applicability of family therapy to Japanese families. *Family Process, 31*(4), 319-340.

West, S. G., Taylor, A. B., & Wu, W. (2012). Model fit and model selec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 H. Hoyle (Ed.), *Handbook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09-231).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23. 07. 10
수정원고접수일 : 2023. 10. 16
게 재 결 정 일 : 2023. 10. 30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4, Vol. 36, No. 1, 229-254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A Medi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Moderated by Desire to Please Others

Youngshin Kim Sogang University / Master's Degree

Kyu Jin Yon Sogang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explored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moderated by the desire to please oth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responses from 376 participants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were utiliz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Mplus8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areer adaptabil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and life satisfaction was moderated by the desire to please others. The higher the score on the desire to please others, the stronger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llege students,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career adaptability, life satisfaction, desire to please others